

연해주 한인 이민史 자료 첫 공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수집 신문·책·사진 등... 생활상 보여줘

▲연해주= 러시아 시베리아 동해 연안에 있는 지방. 주도(主都)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가 1861년 연해주 개발을 위해 자유이민법을 제정한 이후 일제 침략에 위기감을 느낀 수많은 한인들이 간도와 함께 망명지나 새로운 거주지로 택해 떠났다.

광복절 63주년을 맞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일제를 피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무더기로 공개됐다.

이들 자료는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단장 임재완)이 지난해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행하는 '근·현대 한인 디아스포라 지식자원 DB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집된 것이다. 세계한상문화연구원은 다음달 말 '세계한상문화연구 총서'(전 33권) 출판기념회와 함께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러시아 황실 주도로 발간된 박물관

성격의 책과 연해주 이주 한인들이 만든 신문을 비롯, 1930년대 소련 정부의 소수민족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흩어지기 전까지 연해주 이민 초기 한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내에는 공개된 적이 없는 희귀본도 다수 섞여 있다.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 황실 지리학회 세묘노프 부회장이 편집을 맡은 박물관 '살아있는 러시아'(1895년 발간)는 러시아 전 지역의 지질, 역사, 종족, 경제, 풍속을 다룬 시리즈다. 이중 연해주와 아무르 지방이 실린 12권 2부(475쪽) 가운데 극동지역 부분

의 15쪽에 걸쳐 19세기 말 연해주 이주 초기 한국인들의 모습이 소개돼 있다.

1917년 발간된 한인 주간지 '한인신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일제의 침략에 따른 위기감 등이 연해주까지 미쳤음을 보여준다. 1917년 7월 8일 창간돼 매주 한글로 간행된 '한인

신보'는 한국인들이 모여 살던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발행인 겸 편집인은 전로한족회대표자회 부의장을 맡기도 한 한안드레이였다.

1917년 12월 24일자 제25호에는 러시아와 독일의 휴전에 대한 기사를 쓰고 휴전조건을 자세히 실었다. 12월 10일자 제23호 1면 '각 국에 연중 총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우리의 중심되는 모듬은 곧 고려족 중앙총회이며 그 밖에 한인자치를 연락하며 민족정신을 통일케 하도록 힘쓸지나..."라며 한인들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었다.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재형(1858~1920)이 신문을 찾았다는 소식도 있다. 신문은 '최씨의 분사방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고려족총회 창립과 관련, 새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지금 한인 호수가 1천여호가 되니 한 집에 두어량씩 내도 한인 교육은 열려가 없다"고 한 최재형의 말을 전했다. 맨 뒷장의 광고란에는 사람을 찾는 광고, 각종 모임에 후원금을 낸 사람의 명단 등이 실려 있다.

세계한상문화연구원은 러시아 각지의 대형도서관에서 복사한 한국 관련 희귀자료도 함께 전시한다. '독립신문' 사장인 김승학(1881~1965)의 저술 신단민사(神檀民史·1923년), 한·불사전(1880년), 한국어 격일간지 '신봉'(1920~1930년대) 등이다.



박물관 '살아있는 러시아'에 실린 연해주 이주 한국인들의 모습. 한복 차림에 축창을 든 한국인들이 죄수로 보이는 사람을 문초하고 있다. 오른쪽은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 일가족을 그린 스케치 그림.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男핸드볼 2연승 질주 14일 베이징 올림픽스포츠타 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핸드볼 남자 B조 3차전에서 백원철이 아이슬란드 골문으로 쏘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격! 女양궁 7연패 좌절

박성현 銀·윤옥희 銅... 女유도 정경미 銅 추가

세계 최강 한국 여자양궁이 충격의 패배를 당했다. 14일 2008베이징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2관왕 2연패에 도전했던 박성현(25·전북도청)이 중국의 장취엔취엔에게 한 점 차로 금메달을 빼앗기면서 여자 개인 통산 7연패의 꿈이 좌절됐다.

이날 베이징 올림픽그린 양궁장에서 열린 2008베이징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박성현은 중국의 장취엔취엔에게 109-110(120점 만점)으로 져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1984년 LA대회부터 올림픽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던 한국은 연패 위업이 '6'에서 멈췄다. <관련기사 7·18·19면> 이날 한국은 확실한 우승이 점쳐졌던 양궁 여자개인 부문에서 박성현이 아쉽게 패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계속됐던 금메달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정경미(23·하이원)는 유도 여자 78kg급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정경미는 14일 베이징과학기술대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여자 78kg급 4강전에서 카스티요(쿠바)에게 효과로 패한 뒤, 동메달 결정전에서 브라질의 실바를 누르기 한판으로 꺾고 8년만에 한국여자 유도에 메달을 안겼다.

같은 날 남자핸드볼 대표팀은 아이슬란드와의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22-21,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남자탁구도 단체전 C조 예선 3차전에서 유승민(삼성생명)과 오상은(KT&G), 윤재영(상무)을 앞세워 대만에 3-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13일 미국에 극적인 8-7 역전승을 거뒀던 야구대표팀은 14일 중국

국기별 메달 순위 (14일 19시 5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21	7	5	33
2	미국	10	9	14	33
3	대한민국	6	7	3	16
4	이탈리아	6	4	3	13
5	독일	6	2	3	11

- 오늘의 빅매치 (15일) <한국시각>
-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 박경모-이청환-임동현 출전 (11시30분)
 - 배드민턴 여자복식 결승 등 이경원-이효정 출전 (11시부타)
 - 야구 한국-캐나다 (19시)
 - 핸드볼 여자부 한국-브라질 (11시45분)

과 경기를 벌였으나 비로 인해 0-0으로 맞선 6회 말 한국 공격 1사 주자 없는 이종욱 타석에서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결정이 내려져 17일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문화수도·J프로젝트 적극 지원”

한나라당 지도부, 광주·전남도 정책협의회

집권 여당이 된 후 광주·전남지역을 첫 방문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광주·전남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박희태 대표, 허태열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12명은 14일 광주·전남도와 있던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 대표는 광주시와 정책간담회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인사와 예산으로 호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광주가 당면한 문화중심도시는 정말 만대에 남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광주가 호남의 도시,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에 우뚝 설 빛깔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박 대표는 또 전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에서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이런 구애 행진이 짝사랑이 될지 모르지만 끊임 없이 행해질 것”이라면서 “전남이 J프로젝트를 통해 나후의 대명사에서 선진지역의 대명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광주시가 건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

업을 비롯, 광주시의 신규 사업인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가전로봇산업 육성, 미래형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국립다문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당장 협의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전남도가 건의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새천년대교 건설, 호남고속철 조기개통 등의 현안이 무난히 처리되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